



법역설학과 법기생학

자유전공학부 1학년 세미나



one hard case



▶ 12째 낙타

$$1/2 + 1/4 + 1/6 = ?$$

$$6 + 3 + 2 = 11$$

‘필요하다’ ≡ ‘필요하지 않다’ → 역설(para + doxa)

Law as social communication

- 사회 = 커뮤니케이션의 체계(= 체계/환경의 구별)
- 법 = 사회의 부분체계(= 커뮤니케이션의 체계)
 - ↳ 법전, 법원 건물, 피고인, 원고, 변호사, 법관, 검사, 법학교수는 법이 아니다.
- 법은 '법/불법'의 구별(= code)에 지향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이다 → 법체계/환경(정치, 경제, 학문, 교육 등)

Paradox

- ▶ 에피메니데스의 역설: “모든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쟁이다”라고 에피메니데스는 말했다.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인이다.

T, because F/ F, because T (T, ~ -T; F, ~ - F)

* code에 code를 적용하면?

- ▶ Positive self-reference: “법/불법의 구별이 법이다.” – “legal/illegal is legal”
- ▶ Negative self-reference: “법/불법의 구별은 불법이다.” – “legal/illegal is illegal”

- Tragic Choice

- 권리남용[위법한 권리(법)행사] – 사익/공익 The Tragedy of Commons

- 위험책임

- 경쟁제한법

- 소유권



Unfolding of Paradox



1) B. Russel/ A. Whitehead

Hierarchy: Meta-language/ Object-language

2) 법질서의 Hierarchy

* K. Gödel: incompleteness theorem

- 법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! (법은 법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) → 12번째 낙타? 낙타의 이름은?



Another Paradox

▶ Closure and Openness of legal system

- open, because close (A, \sim -A)

i) code(y/n)의 폐쇄성 없이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

- 12째 낙타는 필요하지 않다.

법/불법; 참/거짓; 소유/무(비)소유; 권력/무력; 병/건강

ii) Tautology의 회피: code value의 분배를 위한 program

iii) 제3의 가치의 배제 - really?

Parasite

▶ Michel Serres (1930-2019)

“인간의 사회는 화합과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숙주/기생의 끝없는 순환이다.” - parasite as noise; order from noise

* para+sitos

- 배제된 포함된 제3자; 12번째 낙타? - program으로?

i) 법과 정치(법과 권력) 또는 법과 경제(법과 경제)

ii) 자유와 안전 - 법과 ‘virus에 대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’
anxiety communication(secure/not secure)

Parasite as Revolutionary

- ▶ 숙주의 죽음 또는 숙주의 혁명적 전환
 - terrorism
 - global environmental crisis
 - capitalism? - Thomas Piketty
 - 모두를 위한 자유?